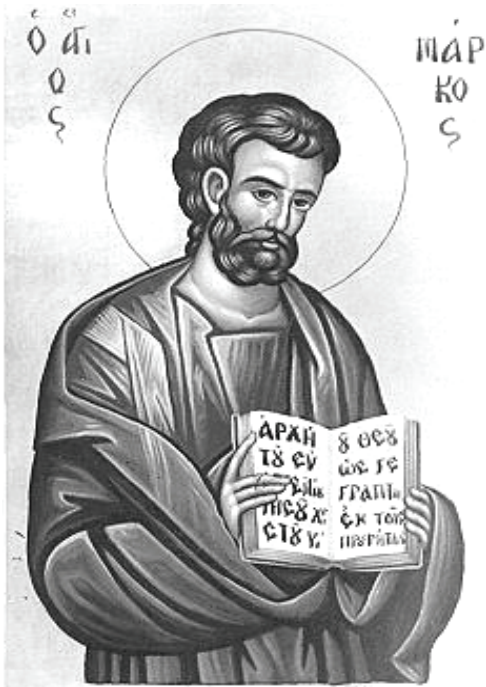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마르코 복음사도

성지 주일(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성 이아누아리오스 사제순교자,

성 알렉산드라 왕비

성 요한 크리소스토م 성찬예배에서

- 성지 주일 제2응송 / 239, B 302
- 성지 주일 찬양송 / 239, B 303
- 성지 주일 입당송 / 239, B 304
- 성지 주일 시기송 / 239, B 304
- 사도경 : 필립비 4,4-9 / 239, 봉독서 462
- 복음경 : 요한 12,1-18 / 240, B 305
- 성지 주일 성모송 / 비고정 축일 성가집 67
- 성지 주일 영성체송 / 241, B 307
- ‘주의 이름이 이제로부터...’ 대신 ‘성지 주일 찬양송’ / 239, B 303

• 신랑의 예식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마르코 복음사도

우리 교회에서는 4월 25일을 성 마르코 복음사도 축일로 기념합니다. 마르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들 중에서 첫 자리에 있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로의 설교 사역 협력자였습니다. 두 번째 복음경의 저자로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셨습니다.

‘마르코 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

고,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전해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의 복음서라 불리기도 합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주님이 잡혀가실 때 “몸에 고운 삼베만을 두른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 가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삼베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마르코 14:51~52)고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젊은이가 마르코 복음사도 자신이었다고 알려져 옵니다.

질투와 사랑

질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어서 나보다 더 우월하게 보일 때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이런 심리적 상태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자신의 능력이 상대방과 비교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심한 열등감으로 인하여 미움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상대방을 없애려고 까지 한다. 특히 자신의 위치가 흔들려서 위상이 떨어지게 되면 적의는 극대화가 된다.

질투는 자기 발전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후에 나보다 못하다고 판단되면 만족하여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버린다. 그리고 질투를 질투로 인정 안 하고 부정하는데, 그것은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에 빠지게 되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투를 느끼게 되면 상대방을 미워할 만한 그럴듯한 합리적 이유를 찾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불행해지거나 실패하도록 마음 속으로 간절히 빌고 더 나아가 갖은 방법을 동원해 그렇게 되도록 시도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잘못된 점들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질투로 인해 일시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대부분 결과는 실패로 비참히 끝나고 만다.

반면에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한다. 설사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만큼 상대에게 베풀고 싶어 한다. 돈이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주려하고 베푸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아간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싶어 한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려 하고 배불리게 해주고 싶어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불행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되게

해주려 한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헌신적으로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고 싶어 한다.

하느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것이다. 창조물들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말을 듣지 않더라도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언젠가는 그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어 한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못된 자식들을 품에 안으시려고 하신다.

자신이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당하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가신다. 그것은 오직 사랑하는 자식들을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시기 위함이다. 단순히 인간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해 희생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희생적 사랑을 택하신 것이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의 인간적 사랑을 바라보고 환호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친다. 주님의 권능에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이 주님의 인간적인 사랑만 바라본 사람들을 선동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영적 사랑은 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세속적 사랑만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태인가? 주님의 영적 사랑을 깨닫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오로지 세속적인 사랑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당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영적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감동하여 “호산나!”하며 주님을 반갑게 맞이해야 하겠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중 신부



배고픈 사람과 포도원 주인

한번은 배가 몹시 고프는 사람이 포도원으로 와서 주인에게 요청했다. “먹을 포도를 좀 주세요. 배가 너무 고프니다.” 그러자 주인은 “잠깐만 기다리세요!”하고 대답하였다.

배고픈 사람은 한동안 기다렸다. 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주인이 나를 잊어버린 게로구만!”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다. 그가 떠나려고 할 때,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며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다.

“형제여, 기다리시오! 여기 포도가 있소. 당신에게 가장 좋은 포도를 주려고 포도밭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다보니 이렇게 늦고 말았대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다. 때로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 아주 잊어버린 것 같은 때도 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실 때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주시기 위해 찾고 계신 것이다.

▶ 아타나시아



성 대주간과 부활절 예식

☞ 성당마다 일정과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예배 시간은 꼭 성당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4월 21일 **성지 주일** 오전 ▷ 조과,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찬예배
오후 ▷ 신랑의 예식
- 4월 22일 성 대월요일 저녁 ▷ 신랑의 예식
- 4월 23일 성 대화요일 오전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저녁 ▷ 신랑의 예식
- 4월 24일 성 대수요일 오전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저녁 ▷ 성유성사
- 4월 25일 성 대목요일 오전 ▷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저녁 ▷ 주님의 거룩한 고난 예식(12복음 봉독)
- 4월 26일 성 대금요일 오전 ▷ 대시과(1, 3, 6 시과)
오후 ▷ 9시과, 만과,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예식
저녁 ▷ 에빠따피오스 예식
- 4월 27일 성 대토요일 오전 ▷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저녁 ▷ 부활절 예식,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
- 4월 28일 **부활 주일** 오전 ▷ 사랑의 대만과 / 정오 ▷ 사랑의 오찬

소 식

대교구

■ 정교회 출판사 신간 안내 「다락방 방문」
▷ 넥타리오스 성인의 어린 시절을 그린 만화책입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넥타리오스(어릴 적 이름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성인은 돈도 없고 공부도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콘스탄티노플로 떠납니다. 대도시 담배 가게 점원으로 어렵게 일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았던 어린 넥타리오스가 잠결에 그의 숙소였던 다락방을 방문해주신 그리스도를 만난 기적을 체험하면서 역경을 아름답고 순결한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린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이 만화책을 선물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 성화 수업 ▷ 올해도 소조스 야누디스 교수님이 지도하시는 성화 수업이 5월 20일 ~ 6월 25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울 성당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부활절 꽃, 달걀 봉헌 신청 ▷ 부활절 달걀과 에피타피오스 꽃 장식 봉헌을 신청받습니다. 부활절 달걀은 성당에 기증하는 부분과 신자분이 가져가는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성당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당 대청소 ▷ 오늘 성찬예배를 마치고 사랑의 오찬 후 부활절을 준비하는 성당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모두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